

2020 새 설계

김준성 영광군수

“지역경제 氣살리기로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올 한 해는 지역경제 기(氣) 살리기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민선 7기 반환점을 맞아 ‘4대 분야 45개’ 사업이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e-모빌리티 규제 특례 실증 사업, e-모빌리티 전용 도로 개설,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조성 등으로 영광을 ‘e-모빌리티 도시’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e-모빌리티의 본산인 영광 대마 산단의 분양률을 현재 85.7%에서 100%까지 끌어 올린다.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1단계 사업으로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260억원을 들여 ‘20MW급’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도 구축한다.

굴비굴영광시장 현대화를 위해 136억원을 투입하고 청년이 꿈꾸는 공방거리 10곳과 청년창업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충에도 나선다.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상품권의 유통 확산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훈풍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김 군수는 따뜻한 ‘포용 복지’로 주민의 행복지수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영유아·노인·장애인까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e-모빌리티 도시영광’ 부품품 136억원 투입 청년일자리 확충 칠산대교 개통 관광객 300만시대

있는 사회 관계망을 구축하고, 주민이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민간 자원을 통합·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새로운 민관 복지 모델로 주목받는 ‘착한 가게’를 200호점(현재 115호점)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군남보건지소를 개소하고 낙월면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착륙장을 설치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능력 개발 지원,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도전 골든벨’ 개최, 1000원 여객선 도입 등 복지 서비스도 강화한다.

김 군수는 “농부의 마음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안정된 소득으로 살맛 나는 농어촌 육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저가격 보장제로 주요 농산물의 유통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연 60만원 상당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영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100억원이 투입되는 낙월도 명품어촌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송이도 마을 특화사업, 안마도 가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낙월면을 ‘블루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동물복지형 청정 축산농장을 조성하고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할 방침이다.

핵심 소득 분야인 ‘영광굴비 산업’은 지리적표시제 등록과 더불어 400억원을 들여 ‘참조기 스마트 수산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천일염 산업 부흥을 위해 수매물량을 6000t으로 확대한다.

김 군수는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칠산대교 개통, 백수 해안 노을 관광지 조성, 칠산타워 주변 개발, 칠산노을 치유숲길 조성, 불갑사 관광지 확장 등으로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상사화 근력지이자 관광명소인 불갑사 일원에는 159억원을 들여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을 연내 착공하고, 불갑사 야생화 생태공원(62억원)과 상사화전시교육관(8억6000만원) 건립에도 나선다.

올해 4월 열리는 제59회 전남제전을 내실 있게 준비해 지역의 스포츠 역량을 선보일 계획이다.

2020년 주요 사업은

- ▲나눔과 행복이 있는 따뜻한 포용복지로 주민의 행복지수 ‘업’
- ▲안정된 소득으로 살맛나는 부자 농산어촌 육성
-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웰니스 문화·관광·스포츠 확산
- ▲사람이 우선되고, 사람이 중심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주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 현장행정 구현
- ▲지역경제 기(氣) 살리기로 민생경제 활력

지방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식수 전용 저수지 조성, 행복주택 건립,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 영광IC 하이패스 건설 등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이라는 큰 뜻을 품고 숨 가쁘게 달려왔고 각종 평가에서 최고의 성과를 얻었다”며 “새해에도 주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 행복을 위해 한 발 더 뛰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신안군, 흑산성당 복원·관광자원화 사업 본격화

군, 150억원 투입

천주교 역사문화관 조성 등 정비·복원 위한 업무협약

국토의 최서남단에 위치한 신안군의 ‘흑산성당(사진) 복원과 관광자원화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안군은 흑산면 진리 흑산성당 일원에 천주교 역사문화관, 선교 및 교육 시설 복원, 성지순례길, 순례자 숙소, 피정의 집 등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천주교 광주대교구청과 ‘흑산성당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및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는 15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과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은 1월 중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부지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흑산성당은 흑산도에 천주교가 전파돼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장소다.

또 선교 및 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낙후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던 점에서 종교적 가



치와 지역사적 의미가 큰 유적이다.

흑산성당은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기근과 문맹을 겪어야 했던 흑산도 주민들을 위해 구호물품의 공급과 의료활동, 그리고 성모중학교를 건립하는 등 흑산도의 발전에 공헌을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흑산도의 근현대사와

함께 했던 흑산성당의 교육·의료 등 다양한 활동상을 복원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흑산성당의 근대문화재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함평군, 기업도시 움직임 활발
14개 기업·242억원 투자 유치
동함평산단 가동률 50% 돌파

국내 대표 친환경 농업지역인 함평군이 기업도시로 향하는 활발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4개 기업을 신규 유치해 총 투자금액 242억원, 고용인원 194명의 성과를 올렸다.

공장 실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업체도 올해 17개를 기록, 207억원의 투자액과 177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함평 이전 또는 공장 신설을 약속한 기업도 7개에 달해 총 9228억원의 투자금과 1071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움츠렸던 지역산단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80%대 고분양률에 비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함평산단 가동률은 올해 처음 50%를 돌파했다.

지난 2017년 국토부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 등 총 사업비 1382억원이 투입되는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올해 7월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 조성에 들어갔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무안군, 2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무안군이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무안군에 따르면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월 29일까지 두 달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쓰레기 불법투기로 악취와 미관 저해 등 환경오염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심 상가 옆 공터와 원룸 주변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 많아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사진>

군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활용동네마당’ 등을 확대 설치하고, 이동식 CCTV 단속 강화와 전담 단속반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와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거를 거부하고 행정처분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